

개 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개년 협력사업으로 진행된 ‘한-몽골 무형문화재 보호제도 구축 지원사업’이 몽골 자연문화유산보호재단과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의 공동주관하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몽골의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제반 환경의 구축을 목표로 한 본 사업을 통해 관련 법령과 제도가 마련되었으며, 이들은 현재 모두 효과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또한 몽골의 무형문화유산과 연행자들에 대한 지정, 등록, 기록 작업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연구가 수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국가의 무형문화유산 지정 작업을 향상시키고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효과적으로 기여하였다. 위의 활동들을 기반으로, ‘몽골의 무형문화유산’이라는 가이드북이 몽골어와 영어로 출간되었으며, 정부기관과 학교, 단체, 도서관 등 관련 전문가 및 기관에 배포되었다. 이는 일반 대중들의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 데 기여하였다. 본 사업의 일환으로 2008년부터 몽골 자연문화유산보호재단은 각 문화 기관들에 소장되어 있는 노후화된 자기 테이프와 녹음 자료들에 대한 조사를 위한 연구팀을 구성하였다. 이러한 노후화된 음성 및 영상 자료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평가함으로써 연구팀은 노후화된 자료들이 긴급하게 보호되고 복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합의에 도달하였다.

1950년대 초반부터 몽골의 언어문학연구소는 일년에 1-3차례 연구팀을 보내어 구비 문학과 지역방언을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해왔다. 위의 활동들은 문서자료와 오디오 자기 테이프 등이 보존되고 연구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아카이브의 공식적 출범을 가능하게 하는 초석이 되었다. 연구소는 연구팀을 보내는 것과 동시에 무형문화유산 보유자들을 초청하여 그들의 유산들을 자기 테이프에 녹음하였다.

그 결과 서사시, 민화, 민속음악, 축도, 시, 수수께끼, 속담, 그 밖의 각 지역별 특성을 띤 몽골의 다양한 구전 전통 유산들이 성공적으로 녹음되었고 처음으로 한 곳에 수집되었다. 특히 언어와 방언들 중에서 이미 그 특성을 잃어버리거나 다른 언어로 통합 흡수된 것들도 구비 전통 문학에서 명확하게 그 특성이 드러났으며 이러한 자료들 역시 자기 테이프에 저장하여 보존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것은 유산들이 자기 테이프에 보관됨으로써 그 본래 형태의 역사적, 학문적 가치가 더욱 증진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언어문학연구소에 소장된 대부분의 자기 테이프들은 60년 이상 된 것들이기 때문에 일부는 이미 보관 기간이 만료되었다. 또한 열악한 보관 상태로 인해 일부는 건조되고 다른

테이프들과 달라붙거나 파손되어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자기 테이프의 보관과 디지털화 작업은 보관 환경의 개선과 더불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2008년부터 연구소는 노후화된 자기 테이프의 보관과 디지털화를 위한 내부적인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력과 재정 문제, 적절한 도구 및 기술 장비의 부족으로 인해 테이프의 보관과 디지털화를 위한 노력들은 난관에 부딪혔고 부진한 결과를 보이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언어문학연구소의 책임자들은 국내 및 해외 기관들에 여러 차례 노후화된 자기 테이프들의 보관과 디지털화 작업을 위한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불행히도 어떤 기관으로부터도 협조 응답을 받지 못한 채 2010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2009년, 언어문학연구소의 책임자들은 몽골 자연문화유산보호재단에 협조 요청을 하였고 두 기관은 노후화된 자기 테이프의 보관과 디지털화의 가능성들을 함께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몽골 자연문화유산보호재단이 한국의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에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었다.

자연문화유산보호재단은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에 한-몽골 양국간의 협력사업을 계속 진행하여, 노후화된 자기 테이프를 복구하고 디지털화하여 대중들에게 배포할 것을 제안하였다. 한국은 이러한 사업 계획을 검토한 뒤, 몽골에 연구팀을 파견하여 양국간의 협력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것의 타당성 평가를 위한 현지조사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몽골 자연문화유산보호재단과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의 주관 하에 ‘2011/2012 몽골-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협력 정보화 구축 지원사업’이 2011년 10월부터 2012년 4월 15일까지 성공적으로 착수되었다.